

봄이 활짝 열린다...광양매화축제 8일 개막

개화 빨라 예전보다 1주일 앞당겨
시립합창단 공연·토크콘서트
'차와 율희매의 만남' 등 다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광양매화축제가 8일 21회의 막을 올린다.
올해는 개화 시기가 빨라 역대 축제보다 1주일가량 앞당겨 봄을 기다려온 상춘객을 맞는다.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 구례, 하동 3개 시군의 영호남 화합행사를 개막식으로 대체하는 가운데,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정인화 국회의원, 정현복 광양시장과 김순호 구례군수, 윤상기 하동군수를 비롯한 지역민 200여 명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매화꽃 전국, 여기는 광양'이라는 슬로건으로 17일까지 열리는 광양매화축제는 개막선언에 앞서 '차(茶)와 율희매(輪梅)의 만남', 광양시립합창단 공연 등 은은하고 향기로운 프로그램으로 오감을 연다.

율희매는 조선시대 이덕무 선생이 잠시 피었다 지는 매화를 밀랍으로 만들어 차(茶)와 함께 사시사철 감상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꽃은 밀랍이 되고 밀랍은 다시 꽃이 되는 율희매를 상징한다.

축제기간 광양을 찾는 관광객들은 매화 문화관에서 차와 율희매 전시를 감상할 수 있다.

광양, 구례, 하동 3개 시군 어린이들이 완성할 구구소환도(九九消寒圖) 퍼포먼스



광양시 다압면 일원에 매화가 꽃망울을 터트렸다. 21회를 맞은 광양매화축제는 8일 개막해 이달 17일까지 이어진다. <광양시 제공>

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구구소환도는 선조들이 동지(冬至)로부터 9일을 단위로 9번의 추위가 지나면 봄이 온다는 뜻으로 81송이 매화를 하루 한 송이씩 칠해가던 소망과 기다림의 미학으로, 꿈을 상징하는 어린이들이 완성할 구구소환도는 진정한 봄의 선언이다.

축제를 알리고, 동참을 권유하는 다압면 풍물단의 길놀이로 축제의 흥을 돋고 '어린 연어 방류'를 위해 섬진나루터로 이동한다.

모전회귀성(母回歸性)을 가진 연어를 3개 시군의 참석자들이 함께 방류하는 것은 남도의 젓줄 섬진강의 생태와 미래의

가치를 보존하는 일이고 영호남의 화합과 상생을 이어가는 길이다.

이외에도 '홍쌍리 & 김용택 & 장사익'이 여어낼 '꾼들의 3인 3색 토크콘서트' 등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롭고 참신한 프로그램으로 가득 채웠다.

특히 축제장에는 인생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트렌드를 반영해 포토월과 포토존을 곳곳에 설치하고, 찾아가는 DJ박스와 꽃길 작은 음악회 등을 열어 축제장 전체가 젊은 감성터마 로드로 꾸며졌다.

또 크리에이터가 실시간 유튜브 동영상을 생중계하고, 드론 영상 중계 시스템으

로 개화(開花), 교통 상황 등 축제 현장을 24시간 스케치하는 등 감각적이고 역동적인 축제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꽃샘추위에 대비해 대형텐트를 마련하고, 난립했던 도로변 노점상은 질서와 위생, 맛을 지켜나가게 지도하며, 화장실을 추가 설치하는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 쾌적한 축제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었다.

광양시 관계자는 "문향(文香)과 매향(梅香) 그리고 시공을 조율한 화합과 상생의 메시지를 두루 담은 고품격 축제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태동의 도시 광양의 매력을 한껏 만끽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이순신대교 해변관광테마거리 상징 관문 완공 눈앞

이순신대교 해변관광테마거리 상징 관문이 조만간 모습을 드러낸다.

광양시 삼화섬과 마동지구를 연결하는 경관보도육교의 상부 다리가 성공적으로 가설돼 이순신대교 해변관광테마거리의 상징적 관문(조감도)이 열린다고 밝혔다.

오는 6월이면 캐노피와 전망대가 설치되고 경관 조명 등이 마무리되어 웅장하고 화려한 보도교가 선보이게 된다.

교통 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전 출입구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을 설치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강화유리로 심플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하여 경관보도교로서의 미학을 추구했다.

또 전망대 돔(dome)에는 별자리로 광양의 가치를 표현해 단순한 이동통로가 아닌 전망과 휴게공간을 갖춘 보도교의 상징적 랜드마크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경관보도교가 완공되면 금호동과 중마동이 선(線)으로 연결되어 주민들의 보행편면을 늘리는 입체적 효과가 나타나고 이순신대교 해변관광테마거리사업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현재 설계 중인 이순신대교 접속부와 마동IC접속고, 김호대교, 금호대교 등 4대 교량과 교량 간 9.4km의 해변을 잇는 야간경관조명사업에 올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경관보도교 준공 전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보도교 명칭도 확정한다.

광양시 관계자는 "경관보도육교는 기간 주로 광양제철소 직원들이 거주하는 금호동 주민들과 중마동 권역 주민들 간 물리적·정서적 원활한 소통과 함께 동광양권역의 전반적인 경제적 발전까지 이끄는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순신대교 해변관광테마거리 조성사업의 일련한 경관보도교는 2017년 9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디자인을 확정 후 2018년 5월 착공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소방서 전통시장 전문의용소방대 발대

광양소방서는 2019년 전통시장(재래시장)의 선제적 예방·대응 전략으로 '전통시장 전문의용소방대' 발대식을 갖고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광양소방서는 지난 28일 중마상설시장에서 광양시장, 국회의원, 도의장, 도의원, 시의원, 연합회장 등 150여명 참석한 가운데 전통시장 전문의용소방대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임명장 수여를 시작으로 광양시 의용소방대와 상인회간 '화재안전 업무협약' 체결, 소방기초시설 및 감지기 후원, 안전지원 풍선날리기, 품관창 조작시연, 단독경보형 감지기 작동시연, 호스릴소화전 조작시연, 화재예방 안전캠페인으로 진행했다.

또 포스코 광양제철소, (주)KMS에서는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을 통하여 기초소방시설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기부행사를 가졌다.



광양소방서는 '전통시장 전문의용소방대' 발대식을 갖고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광양시 제공>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후원으로는 2100만원 상당 기초소방시설 및 감지기 700대, (주)KMS의 후원으로는 2000만원 상당 품관창 10대와 소화약재를 전달했다.

전통시장 전문의용소방대는 평소에는 철시 前 전원차단, 화기단속, 위험요소 제거 등 취약시간대 방화소찰을 하고, 화재 및 재난 시 주변 상가에 화재발생 사실 전파, 소화기 및 호스릴소화전을 활용한 초기소화 등 초동대처 및 진압활동의 임무를 하게 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봉강면 하조마을·옥룡면 죽림마을 새뜰마을사업 공모 신청

광양시는 2019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인 새뜰마을사업 공모에 봉강면 하조마을과 옥룡면 죽림마을 2개 지구를 신청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새뜰마을사업'은 농촌지역의 취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통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한 단계 높이는 사업이다.

특히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 등 주택정비를 중점적으로 추진되며,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생활·위생·안전 등 긴요한 인프라 확충과 주거환경개선,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이 추진된다.

그동안 시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 현장포럼(4차례), 전문가 자문(2차례),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했다.

공모 신청한 '봉강면 하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총사업비 15억원으로 빈집정비 22가구, 교량 설치, 주택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이 주요사업에 포함됐다.

'옥룡면 죽림마을'은 총사업비 16억 7100만원을 투입해 마을안길포장, 집수리 25가구, 담장정비 등이 이번 사업계획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 18일 전남도 도 발표평가를 마친 후, 22일 전남도 및 균형발전위원회에 최종계획서를 제출했다.

3월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대면평가 및 현장방문이 예정돼 있으며, 4월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시는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후 공사를 시행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성과관리를 실시해 마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새뜰마을사업을 통해 봉강면 하조마을과 옥룡면 죽림마을을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며 "부족한 기초생활 인프라를 개선해 주민이 행복한 농촌 마을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광양항만공사 '취업멘토스쿨 시즌2' 직무교육



지난 26일 열린 전남형 동행 일자리 사업인 '취업멘토스쿨 시즌2'의 교육생들이 직무교육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제공>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차민식·이하 공사)는 지난 26일 월드마린센터에서 전남형 동행 일자리 사업인 '취업멘토스쿨 시즌2' 직무교육을 시작했다.

'취업멘토스쿨 시즌2'는 공사를 비롯한 전남도, 광양시, 사단법인 광양만권HRD센터 등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함께 협업해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

이다. 특히 광양시 지역산업의 특성을 맞춰 항만 뿐만 아니라 제철산업, 제조업 등의 직무와 현장 교육을 토대로 취업까지 연계되는 2019년도 상반기 취업 프로그램이다.

오는 6월까지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60여명의 청년구직자들이 참여하며 ▲사무행정 ▲기계정비 ▲생산관리 ▲설비자동화분야 등 지역 산업현장의 4개 주요 직종에 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연계 ESS에너지저장장치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태양광 발전소에 ESS 설치시 REC 가중치5.0배
- 설치방법 : 본인부담10%·용자90%
- 1년거치 14년상환 (1개월이내 설치완료)



ESS통합시스템 15년 효율보증서 발행 (무정전 전력 공급장치)



전국 지사·대리점·영업자 모집

대표전화 1577-8963
전남지사 010-6838-3366
광주지사 010-5655-5678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주)성광에너지

주 소 | 순천시 중암로 317 2층
전 화 | ☎061-752-7000 Fax | 061-751-6000
총괄본부장 | 010-9896-9754 010-8605-2740